각종 보고서 확인

플러스자산운용(주) http://www.plusasset.com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투자자를 위한 자산운용 보고서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운용기간 2018년 08월 09일 - 2018년 11월 08일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채권)]의 자산운용회사인 [플러스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농협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자산운용(주)

1. 펀드의 개요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인력 현황

5. 비용 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1. 펀드의 개요

▶기본정보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등급	5등급(낮은위험)

펀드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C2518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A		C2519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		C2522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증권펀드(채권형),단위형,개방형,전환형,종류형	최초설정일	2018.02.09
운용기간	2018.08.09 - 2018.11.08	존속기간	2019년02월11일
자산운용회사	플러스자산운용	판매회사	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농협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상품의 특징			
본 상품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고 듀레이션을 1년 이하 수준으로 조절하여 금리상승위험에 대비하고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입니다. 잔여 투자신탁재산으로 기타 및 유동자산에 투자합니다.			

주) 펀드의 자세한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dis.kofia.or.kr],
운용사 홈페이지 [http://www.plusasset.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

※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명칭	항목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자산총액	692	643	-7.13
	부채총액	0	0	-42.54
	순자산총액	692	643	-7.13
	기준가격	1,058.73	1,062.89	0.39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A	기준가격	1,054.02	1,057.55	0.33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	기준가격	1,051.58	1,054.83	0.31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 (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 운용경과

해당 기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하였지만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하였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였고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감소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기간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관련 문서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펀드는 안정적인 통안채를 보유하면서 보유수익 위주로 운용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관련한 리스크는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기업인 중싱통신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거래 정지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금리를 각각 0.25%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면서 보유수익 위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기간수익률

(단위: %)

펀드명칭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2개월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18.08.09 ~ 18.11.08	18.05.09 ~ 18.11.08	18.02.09 ~ 18.11.08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0.39	8.28	6.29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39)	(8.28)	(6.29)	-	-	-	-
비 교 지 수	0.00	0.00	0.00	-	-	-	-
종류(Class)별 현황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A	0.33	8.05	5.76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33)	(8.05)	(5.76)	-	-	-	-
비 교 지 수	0.00	0.00	0.00	-	-	-	-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	0.31	7.93	5.48	-	-	-	-
(비교지수대비 성과)	(0.31)	(7.93)	(5.48)	-	-	-	-
비 교 지 수	0.00	0.00	0.00	-	-	-	-

※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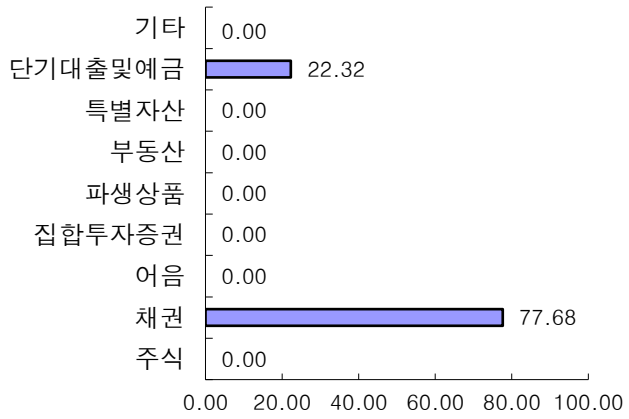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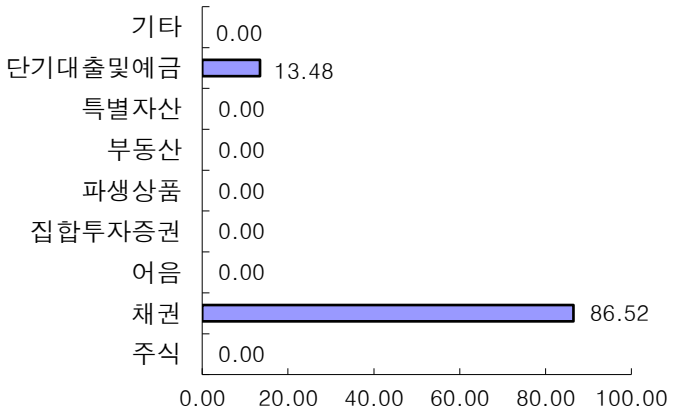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201	2	-	-	-	-	-	-	-	0	0	203
당기	-	2	-	-	-	-	-	-	-	0	0	3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당기	전기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	500	-	-	-	-	-	-	-	144	-	643
	-	(77.68)	-	-	-	-	-	-	-	(22.32)	-	(100.00)
합계	-	500	-	-	-	-	-	-	-	144	-	643
	-	(77.68)	-	-	-	-	-	-	-	(22.32)	-	(100.00)

* ( ) : 구성 비중

▶ 주요자산보유현황

※ 펀드자산 총액에서 상위 10종목, 자산총액의(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 5% 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비고
통안0164-1908-02	500	500	2017.08.02	2019.08.02	-	RF	77.68	77.68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비고
예금	농협은행		144	1.15		22.32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억원)

성명	운용개시일	직위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 규모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	협회등록번호
			펀드 개수	운용 규모	개수	운용 규모		
이관홍	2018.06.19	책임운용 전문인력	8	25,673	-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1993.08~1999.05 대한투자신탁 채권운용 1999.06~2000.06 중앙종합금융수석펀드매니저 2000.07~2003.07 새마을금고연합회 채권운용 2004.01~2005.11 굿앤리치자산운용 2006.01~ 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2109000403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 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운용전문인력
2018.02.09 - 2018.06.18	이관홍
2018.02.09 - 2018.06.18	경우현
2018.06.19 - 2019.02.09	이관홍

(주 1) 2018.11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5. 비용현황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펀드 명칭	구 분		전 기		당 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자산운용회사		2.01	0.13	0.17	0.03
	판매회사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1호(채권) A	0.89	0.09	0.03	0.03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1호(채권) C	0.74	0.14	0.27	0.0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09	0.01	0.02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06	0.00	0.02	0.00
	보수 합계		3.78	0.37	0.51	0.11
	기타비용**		0.01	0.00	0.01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3.24	0.21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70	0.05	-	-
		합계	3.94	0.26	-	-
	증권거래세		9.81	0.64	-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환산, %)

펀드 명칭	구분	해당 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수료비율(B)	합계(A+B)	총보수•비용 비율(A)	매매•중개수수료비율(B)	합계(A+B)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전기	0.00	1.02	1.02	0.00	1.02	1.02
	당기	0.00	-	0.00	0.00	-	0.00
종류(class)별 현황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A	전기	0.98	-	0.98	0.99	1.18	2.17
	당기	0.23	-	0.23	0.23	-	0.23
플러스 단기채권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	전기	0.96	-	0.96	0.96	0.69	1.66
	당기	0.33	-	0.33	0.33	-	0.33

주1)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납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플러스 텐배거중소형주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주1)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해당기간	연환산
-	-	-	-	-	-

주1)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최근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2018.02.09 ~ 2018.05.08	-
-	41.95	-

주)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